정읍시, 5년간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식품부와 서울서 농촌협약
2029년까지 255억원 투입
복지·교육·문화 등 기능 강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농촌협약식'에서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이 농촌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농촌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 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2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공동 투자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한 농촌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정읍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상위 거점 지역에는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하위 거점 지역에는 중·저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배후 마을까지 서비스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7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덕천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등 총 7개 면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SOC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문화·복지·체육 등의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은 "이번 농촌협약 사업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립중앙도서관서 '인문학 여행'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선정…강연·탐방 등 문학 프로그램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두 개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삶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강연과 탐방이 결합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나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인문학(뇌와 휴대폰의 알고리즘을 바꾸다)'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문학·미술 작가 강연과 더불어 미술관 현장 탐방을 병행해 참여자들이 보다 흥미롭게 문학과 예술을 통한 인문학적 경험을 쌓고 생각의 구조를 넓혀가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혜학교'는 '심리학으로 배우는 마음의 지혜'를 주제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적 탐색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 프로그램은 6월 13일 '지혜학교'를 시작으로 8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한다. 참여자 모집 등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추후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송현숙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인문의 가치와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지역 발전 이끌 싱크탱크 출범

'GFI미래정책연구센터' 문화·관광, 농식품, ESG 등 정책 연구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지역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연구기관 'GFI미래정책연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GFI미래정책연구센터는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부설 정책연구기관으로, 고창군의 문화·관광, 농·식품, 산업·경제, ESG 분야에 걸친 미래 전략 수립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15일 출범식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김성수·김만기 도의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지역 사회단체장, 정책연구개발 유관기관이 참석해 센터의 비전을 공유했다. 〈사진〉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앞서 2023년 '지역발전전략팀'을 신설하고 '김치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으며, 올해 2월 이사회를 거쳐 GFI미래정책연구센터로 설립 승인됐다.

GFI미래정책연구센터의 명칭은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영문약자(Gochang Food industry Institute, GFI)인 동시에 고창의 미래정책 연구기관(Gochang Future Policy Institute, GFI)의 이중의미를 지닌다.

GFI미래정책연구센터는 양세훈 센터장(행정학 박사)을 비롯한 6명의 석·박사들의 전문 연구진으로 참여해 고창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양세훈 센터장은 "센터는 고창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산업 발전, 기후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고창군의 지방소멸 대응, 관광자원 개발, 식품산업 발전 및 ESG 기반 전략 수립 등 지역 밀착형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이전·개관

전봉준장군 동상 인근…역사 기록·유물 전시·포토존 등 갖춰

고창군이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이전·개관했다. 이번 이전·개관은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으로 추진됐다.

기념관은 기존 공음면 옛 신왕초등학교 부지에 있던 동학농민혁명홍보관을 고창의 중심지인 전봉준장군 동상 인근에 이전·리모델링했다.

특히 기존 '고창동학농민혁명홍보관'을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의 출발에 끼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끌어 올린다는 것이 고창군의 설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세계기록유산 무장 포고문 등 유물전시는 물론, 디지털 홍보영상, OX 퀴즈 모니터, 포토존, 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체험 콘텐츠도 마련됐다.

기념관 옥상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선쉐이드 시설과 벤치 기능을 갖춘 화단 3개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고창의 정신과 얼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군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머무르고, 배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9월까지 모니터링…열탈진·열사병 등 건강 피해 최소화

남원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남원의료원)과 협력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전산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폭염 건강 피해를 감시하여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서 온열질환 주의와 예방 활동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잘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